

지역 상조업체 가입자 수 적고 자본금 열악

광주, 전남·북 등록 19곳중 5곳만 법정기준 초과

부채 과다 개점휴업 업체 속출... 소비자 피해 우려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체(상조업)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에 연고를 둔 업체들이 자본금과 선수금, 가입자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해 그 만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올 4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59개로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34개 줄었다. 7개 업체가 새로 등록했고, 광주 푸른상조(주)를 포함해 41개 업체는 문을 닫았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9개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0개(54.2%)로 가장 많으며,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64개(26.7%)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이 20개(8.3%) 순이었다.

가입자 수 역시 수도권이 28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9%가 수도권 소재 업체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보람상조' 등 수도권 대형업체의 시장점유율(총 선수금 100억원 이상 55개사의 56.4%인 31개사가 수도권에 소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은 54만명으로 14.4%를 차지했으며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각 23만명(6.1%)과 10만명(2.8%)으로 저조했다. 강원과 제주 지역은 3만명으로 0.8%에도 못 미

쳤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가 폐업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지역 중소형 상조업체는 자본금과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지표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권 등록업체 19개 중 5곳만이 법정 자본금 기준(3억원)을 2억원 이상 초과했을 뿐 나머지 업체는 이를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등록업체 공시 이후 대다수 업체가 선수금 비율을 준수하고는 있었지만 자본금을 초과한 과대한 부채와 영업실적 미비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중도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서비스 미이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해약 환급금 지급과 해약 거부 등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상조업 등록 여부와 선수금 보전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하고, 가입 후에는 자신의 선수금과 예치금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자본금과 선수금 보전현황, 예치은행 직접 연락처 등 주요정보와 영업 현황, 휴·폐업 여부 등 유의사항을 공개한다"며 "상조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입 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06.66 (+1.54)
- ▲ 금리 2.65%(+0.04)
- ▲ 코스닥 554.90 (+1.75)
- ▲ 환율 1011.90원 (+1.40)

효성, 600억 들여 베트남 스펀덱스 공장 1만 증설

연간 5만t 생산 가능

첨단소재기업 효성이 스펀덱스 시장 세계 1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6000만 달러(600여억원)를 들여 베트남 스펀덱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1만t 가량 늘린다고 8일 밝혔다.

베트남 공장은 3분기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5만t의 스펀덱스를 생산하게 되며 스펀덱스 글로벌 생산량은 17만t으로 늘어난다.

스펀덱스는 '섬유의 반도체'로 불리는 고부가 기능성 섬유로, 기존 고무섬의 3배 강도를 지닌 폴리우레탄이 주성분이다. 원상회복률이 97%에 달해 속옷과 수영복, 스타킹, 기저귀 등 거의 모든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효성은 자사 스펀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공장 증설 후 32%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세계 스펀덱스의류 3월 중 한 달에 원사를 공급하는 셈이라고 효성은 강조했다.

이번 베트남 공장 증설은 빅토리아 시크릿과 유니클로, 스키프 등 해외 패션·의류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동남아권으로 옮기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효성은 설명했다.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은 "세계 시장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국·중국·서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와 동유럽·남미까지 성장세가 높은 시장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상반기 아파트 경매 광주 '후끈' 전남 '침체'

광주 낙찰률 98%, 낙찰률 2위

올 상반기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크게 달아올랐지만, 전남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매정보업체인 이지옥션에 따르면 상반기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률은 97.6%를 기록, 전국 대비 가장 높았고, 낙찰률도 대구(68.3%)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7.7명으로 전국 평균(6.7명)을 웃돌았고, 지난해 하반기(7.6명)에 비해서도 올랐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지역 특성상 실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리면서 경쟁률도 치열해졌다는 분석이다.

경쟁률 1위는 광산구 우산동 어등하이빌(59.7㎡)로 26명이 응찰, 감정가 894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04%다. 낙찰가를 부문에서는 광산구 신가동 한일아파트(39.4㎡)가 142%로 1위를 기록했다. 감정가 1989만원 짜리 아파트가 2817만원에 새 주인을 만났다.

반면, 전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낙찰률이 28.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낙찰률도 역시 79%로 강원(72%), 전북(78%)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평균응찰자수도 4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지역 토지 경매시장은 평균응찰자수가 2.4명으로 전국 평균(3.0명)에 못 미쳤고, 매년 수위를 차지했던 물건수도 충남에 1위를 내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 성과공유시스템 구축

광주지역 기업지원실적과 성과자료가 한 곳에 통합돼 보다 효율적인 기업지원 정책마련의 길이 열렸다.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8일 광주지역 25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각 기관 지원프로그램 등의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광주기업지원 성과공유시스템(GPS)'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광주지역산업 발전 및 기업지원 서비스 공급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광주지역산업진흥협의회(43개 기관·단체·대학(산학협력단) 책임자 참여, 간사기관-광주테크노파크)가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구축했다.

현재 GPS 시스템은 25개 기관과 172개의 각종 사업, 2379개 지역기업 및 기업지원이력 4672건 등의 DB가 등록돼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초복 보양식으로 전복이 최고

롯데마트, 매출 4배 증가

보양식 수요가 많은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재료인 생닭보다 전복이 더 많이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복을 포함한 직전 1주일 매출을 그 전주와 비교해본 결과 전복은 1주일 사이 매출이 4배(303.4%) 이상 늘어나면서 보양식 재료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삼계탕 재료로 많이 쓰이는 황기의 매출 성장률이 302.7%로 2위를 차지했고, 생닭(189.3%)과 여름 과일인 복숭아(160.2%), 인삼(90.2%)이 뒤를 이었다. 농·축·수산물로 구분해 살펴봐도

같은 기간 수산물의 매출 성장률이 209.0%로 가장 높았고, 축산물(85.5%)과 농산물(23.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복이나 낙지 등 복날 삼계탕·해물탕 등 다양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반면, 생닭은 평상시에도 많이 판매돼 전복보다 '복 특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수산물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복 시즌에는 전통적 강자인 삼계탕과 함께 수산물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름철 웰빙 기내 보양식

8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인천공항 지원단지의 LSG 스카이쉐프에서 민어매운탕과 블루베리 디저트 등 여름철에 특화된 다양한 기내 보양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광주시민 절반 이상 "여름휴가 3~4일"

91%가 "국내여행 간다"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 여름 휴가를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가를 계획 중인 사람의 절반은 휴가일정을 3~4일로 잡았다.

8일 광주·전남 맛집 리뷰&검색 사이트 코콕(cococ.co.kr)에 따르면 광주시민 346명에게 여름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82.7%가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90.6%는 국내여행을 갈 것이라고 응답했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응답자는 9.4%에 불과했다.

계획하고 있는 휴가일정은, 휴가를 가겠다는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7%가 '3~4일'을 꼽았다. 이어 '1~2일'이 34.3%, '5~6일' 10.5%, '일주일 이상' 3.5% 순으로 집계됐다.

휴가기간은 '8월 초'가 29.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7월 말(21.3%)', '8월 중순(19.6%)', '7월 중순(10.8%)', '8월 말(10.5%)' 순이어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여름휴가가 집중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352-7788, 676-7719,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TEL.062.944.5775 FAX.062.944.59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